

# FVG의 기술 문제\*

이 병 찬

(독문과 교수)

## I. 서

in Bewegung geraten, zur Kenntnis bringen, in Anwendung kommen, zur Entscheidung kommen/bringen, den Rat geben, Unterstützung finden (Daniels 1963) 따위와 같은 동사적 결합형을 언어비판(Sprachkritik)이나(Ebd. S. 9f.), 양식학(Stilistik)의 (Schmidt 1968 S. 15) 측면에서 동사의 명사화 현상이라는 말로 치부되어 왔다.<sup>1)</sup>

예를 들면 Goethe는 기고단장했던 그의 Leipzig대학 시절에 zu Ende gebracht라는 말을 geendigt로 쓰는 것이 더 나은 문체라 하여 그의 누이를 나무란 적이 있다(Daniels S. 2). 당시에는 동사의 명사화 현상에 대한 거부감과 아울러 동작양태(Aktionsart)에 대한 언어학적 규명이 없었던 때라 zu Ende gebracht와 geendigt간의 의미적 차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언어수행적 측면에서, 이의 취사선택에 유념한 때였던 것이다. 그러나 Peter von Polenz(1963) 이후 이러한 결합형은 단순동사의 양식적 변이형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차이가 이 양자간에 개재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게 되었다. 그는 이와같은 동사 결합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찰하여 의미면은 명사가 담당하고 동사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여 유도성분으로서의 기능만을 갖는다는 것을 최초로 주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도성분으로서의 Leitglied는 기능동사(Funktionsverb)로서 핵심성분으로서의 Nennglied와 합쳐져서 사건개념을 동작양태 측면에서 확실히 명시해 준다는 것이다(Ebd. S. 22ff.). 이것은 Brinkmann(Brinkmann 1971 S. 253)의 「문장가(Satzwert—문장형태소—인칭·시제·법)는 정형에 옮겨지고, 내용가는 부정형에 넘어가는」 화법조동사와 부정형의 역할 분담 변형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Sic muß es schaffen에서 문장가는 행동(Tätigkeit)을 강요하도록 하는 화법동사에 있고, 내용가는 강요를 당한 부정형(schaffen)에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동사가 그 인칭형을 나타낼과 동시에 문법적인 정형을 만들어주고(여기서는 muß), 의미내용은 부정형이 정해준다(schaffen). 역으로 말하면, 의미내용적으로 정해진 부정형(schaffen)이 문법적으로 문장형태소를 받아들인(muß) 정형에 의해 정해지는

\* 이 논문은 1987학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1) 예를 들면 이러한 현상을 Papieridiome, Sprachbeulen(E. Riesel, Stilistik der deutschen Sprache, Moskau 1959 S. 186ff.), Spielart der Hauptwörterkrankheit, Hauptwörterseuche (L. Reiners, Deutsche Stilistik, München 1944 S. 115ff.) 따위의 표현으로 경시되었다.

법칙이 생겨나게 된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은 탈을 바꾸어 동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구성이 될 때도 그런 법칙은 생길 수 있다.

이런 예를 보면 모두의 명사 Entscheidung은 부정형 schaffen의 역할을 분담받고 동사 kommen, bringen 따위는 화법동사 muß의 역할을 분담하는 유추법칙이 생긴다. 이에 입각해서 동사와 명사를 합친 전체구조를 일반적으로 기능동사구(Funktionsverbgefüge=FVG)<sup>2)</sup>라 부르고 동사부문을 따로 기능동사(Funktionsverb=FV), 명사부문을 기능명사(Funktionsnomen=FN)라 부르고 있다. 이때 FV는 일종의 기능요소로 간주되어 sein, kommen, setzen, stehen, geraten, stellen... 따위로 표현되는 것이 특색이나, 대체적으로 동사의 의미내용을 그대로 가진 동작명사(Nomen actionis)나 상태명사(Nomen acti)<sup>3)</sup>로서의 FN은 전치사+명사와 대격명사가 된다. 여격, 소유격, 주격명사 따위는 FVG라는 문법범주에는 들지 않는다(Vgl. Helbig 1979 S. 275f.). 이 FV와 FN이 합쳐진 FVG는 하나의 전체(Gesamtheit)라는, 즉 문장내에서 하나의 Prädikat라는 통사적 기능을 가진 의미적 단위로 나타난다(Heringer S. 30, Persson S. 4). 반면에 Engelen(S. 1)은 FVG의 의미내용은 전적으로 FN에 있다는 것이다.

## II. FVG의 일반적 개관

1962년부터 언어 체계내에서 FVG의 기능을 찾아내고, 다른 구조와의 한계를 따지고, 자료를 모으는 따위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Kolb(1962), P. von Polenz(1963), Daniels(1963), Klein(1968), Heringer(1968), V. Schmidt(1968), Popadić(1971), Herrlitz(1973), Rothkegel(1973), Helbig(1979), Esau(1976), Sommerfeldt(1980), Persson(1975, 1983, 1984)들이 그들이다.

이 중에서 진술한 v. Polenz의 업적이라면 FVG의 기능을 처음으로 분석한 사람중의 하나라는 점과 이 구분을 언어 체계 내에서 특정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게 한 데 있다. 형식적인 그의 관점은 “zum Schweigen bringen, in Bewegung bringen”과 같은 타동사+전치사(+관사)+명사, “zum Erliegen kommen, in Bewegung kommen”과 같은 자동사+전치

2) FVG를 P. von Polenz는 Funktionsverbformeln으로, Kolb(1962)는 analytische Kausativbildung으로, W. Schmidt(1966)는 stehende analytische Verbindung으로, Heringer(1968)는 Funktionsverfügung으로, V. Schmidt(1968)는 Streckformen으로, Schippan(1969)은 feste Verbalbindung으로, Klappenbach(1961)는 einfache phraseologische Verbindungen으로 그리고 Daniels는 nominale.Umschreibung으로 표시했으나 Engelen(1968)이 이를 FVG로 표시한 이후로, Rothkegel(1969), Herrlitz(1973), Persson(1978)들이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3) 어떤 보충어 관계문 설정하는 데 자주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를 동작명사(Nomen actionis)와 상태명사(Nomen acti)로 구분했다. 전자는 ein Bau dauerte sechs Monate und dann stand der fertige Bau da에서 앞 쪽 Bau와 같은 경우로서 이 때의 Bau는 부정형 bauen의 명사형과 상응하고 뒤에 나오는 Bau는 구체화된 Gebäude나 das Gebaute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거분사의 gebaut에 상응되는 명사다.

사(+관사)+명사와 “Ausdruck finden, eine Erklärung finden”과 같은 타동사(+관사)+대격명사 따위의 세 군으로 분할하여 이를 동작명사(Nomen actionis)와 FV로 결합시킴으로써 이 FVG의 어휘화와 동시에 동작양태상의 변화를 지적한 점이다. Daniels는 Weisgerber의 의미내용 문법 이론에 토대를 두고 동사의 대격화 현상으로 FVG를 분석하였다. Klein과 Rothkegel은 FVG의 기계분석을 위한 형식화 작업으로 Renicke(1961)의 동작양태(Aktionsart) 분류에 기초를 둔 FVG의 동작양태 측면을 분석하였고, Heringer는 Tesnière의 결합가 이론(Wertigkeitstheorie), 즉 의존문법(Dependenzgrammatik)과 동작양태 이론(Aktionsartentheorie)이라는 체계내에서 “전치사(+관사)+명사+bringen/kommen”형태의 FVG를 분석하였다. V. Schmidt와 Popadić는 동작명사가 동사의 신장(伸張)형으로서 명사화되는 과정을 신문 독일어(Zeitungsdeutsch)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였다. Herrlitz에 와서야 비로소 변형 생성문법에 입각한 FVG의 분석이 시작된다. 그러나 Helbig와 Sommerfeldt는 여전히 의존문법의 측면에서 FVG의 의미론적 성능(Leistung)과 FVG에서의 결합가(Valenz) 문제를 동작양태와의 관계에서 분석한다. 반면에 Esau와 Persson은 FVG분석에서 생성의 미론(generative Semantik)을 기본 출발 이론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Esau는 Persson의 이론을 보장해 준다는 입장에서 있을 뿐이다. Persson은 FVG의 체계를 설정하여 이를 kausative FVG와 다른 FVG, 그 중에서도 특히 kommen-FVG로 분류하여 이를 논리·의미 구조와 표층구조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을 형식화 한 데 있다.

### III. FVG의 역할

FVG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견해는 FVG가 문장내에서 하나의 Prädikat라는 통사적 기능을 가진 의미적 단위가 된다는 것이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 그 기능은 주로 통사적 요소 FV에 의해서 표현된다. Kolb(1962)는 FV의 사역적 기능에 관심을 가졌는데 “zum Schweigen bringen—schweigen; in Bewegung bringen—sich bewegen”에서처럼 “bringen”의 역할이 사역의 기능으로 증시되었고, 반면에 kommen-FVG는 “zum Erliegen kommen—zum Erliegen gebracht werden; in Bewegung kommen—in Bewegung gebracht werden”에서처럼 사역 구문에 대한 일종의 수동문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Popadić(1971)는 finden-FVG가 “Ausdruck finden—ausgedrückt werden; eine Erklärung finden—erklärt werden”에서처럼 타동사에 대한 수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Kolb 이후 동작양태를 변화시키는 FVG의 기능이 강조되어 사역구조는 자주 동작양태의 변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Heringer(1968) 이후는 이에 입각해서 FVG의 동작적 문제성(aktionale Problematik)에 관해서 규명하게 되었다.

#### Ⅳ. FVG의 구분 문제

Heringer(1968 S. 34f)는 “kommen”과 “bringen”의 두 동사를 가지고 그것들이 완전동사(Vollverb)로 쓰이느냐, FV로 쓰이느냐의 구분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이들의 의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a) kommen

- (1) der Vater kommt
- (2) ich kam an einen Brunnen
- (3) er ist unter ein Auto gekommen
- (4) ein Gewitter kommt
- (5) in einer halben Stunde kommt Berlin
- (6) der nächste Winter kommt gewiß
- (7) wir kommen zum Schluß, zur Abstimmung
- (8) etwas kommt zur Ruhe, zur Sprache, jemand kommt ins Schwitzen.

Heringer는 이들 (1~7)에 나오는 ‘komm-’을 모두 완전 동사로 보고, (8)만 FV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1~7)에 나타난 ‘komm-’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동작을 일으키는 주어가 일정한 지점으로 가는 본래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komm-’이 진정한 FV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bring-’와의 대립관계에서 찾거나, 문맥 또는 다른 걸음을 통해서 찾아야 하고, ‘bring-’이 FV로 쓰일 때는 대체적으로 Tesnière의 의미에서 열성사(Rezessivum)가 되는 데 반해 ‘komm-’도 그런 연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Ebd. S. 80). 우선 여기서의 (1~3)의 ‘kommen 0(6)’ (Engel/Schumacher 1978 S. 208)은 1가 내지 2가 동사로서 동작을 일으키는 주어의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고, (4)는 ‘näht sich’의 의미이고, (5)는 ‘wird erreicht’의 의미로 어떤 지점까지의 동작을 나타낸다. (6)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점까지의 동작을 나타내지만 (4~5)가 공간적 의미인 반면에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7~8)의 ‘komm-’은 대체적으로 FV로 간주되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Heringer (Ebd. S. 35)는 이중 (7)을 완전동사로 분류하고 (8)만 FV로 분류한다. 그는 이 (7)의 ‘komm-’은 (1~6)처럼 어떤 지점까지의 동작을 의미하는 데는 나를 바가 없으나 다만 동작양태상의 의미차이를 나타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7)은 어떤 사건진행(Vorgang)의 출발점(Ausgangspunkt)을 나타내는 기시태가 되고 (8)은 FV로서 ‘komm-’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떤 사건진행이나 상태의 출발점으로 향하는 시간적 접근태로 변한다는 것이다.

##### b) bringen

- (9) bring mir ein Glas Wasser

- (10) jemanden an die Bahn bringen  
 (11) das wird dir keinen Dank bringen  
 (12) a. jemanden ins Grab bringen  
       etwas zu Papier bringen  
       b. jemanden in Aufregung bringen  
       etwas in Bewegung bringen.

‘komm-’과 마찬가지로 (9~12a)에 나오는 ‘bring-’도 완전동사로 나타난다.

(9)는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어떤 지점으로 운반하여 움직인다는 통상적인 의미이고, (10)은 어떤 무엇을 목적점까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다(begleiten)는 의미다. (11)은 사역적 의미를 동반한 시간적 이송(Übertragung)의 의미다. (12a)는 구체명사의 사람 목적어와 사물 목적어를 사역화시키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으며 (12b)는 그것들을 목적어로 갖는 FVG가 되어 하나의 구성체(Komplex)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Ebd.).

이와같은 주장은 우선 ‘komm-’의 경우 그의 결합가이론(Wertigkeitstheorie)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는 Engel의 E<sub>456</sub><sup>4)</sup> (Vgl. 줄고 1981 S. 23ff)을 E<sub>5</sub>라는 하나의 번주로 묶어 이의 통사적 특성을 기록한다. 말하자면 전치사적 보족어, 부사적 보족어, 방향성 보족어를 E<sub>5</sub>라는 보족어로 만들어 이 속에 나타나는 방향성(Direktiv)과 위상성(Situativ)과 양상성(Arten)을 V<sub>12</sub><sup>5)</sup>라는 어휘규칙으로 묶어놓고 있다. 반면에 ‘bring-’은 V<sub>35</sub>라는 어휘규칙 속에서 대격과 E<sub>5</sub>의 목적어를 취하는 3가 동사로 나타난다. Engel의 경우는 V<sub>0136</sub>으로 4가 동사로도 나타난다. Grebe의 경우는 Heringer의 E<sub>5</sub>가 E<sub>46789</sub>로 나타나 ‘bring-’은 E<sub>3</sub>(대격목적어)과 E<sub>6</sub>(Raumergänzung)으로 3가 동사(Grebe 1973 S. 483ff)가 된다. 이때 ‘komm-’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동작(Bewegung)의 양태를 나타내고, 방향성의 자질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다른 전치사와 교환할 수 있고 또 대응어화(Anaphorisierung)시킬 때 전치사를 꼭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점이다. 그리고 ‘bring-’의 경우는 Heringer의 E<sub>3</sub>, Grebe의 E<sub>6</sub>를 대응어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전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7)과 (8) 그리고 (12a)와 (12b)의 문제다. 이것은 그의 FV와 완전동사의 구분 기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는 이를 위해 9가지 검증법을 쓰고 있다(Ebd. S. 26~S. 54). 이 중에서 1~5가 그 기준이 되어 있지만 「확실한 한계는 가능하지도 않거나 자의적」(S. 29)이라는 그의 말대로 아직도 상당한 문제성을 안

4) Engel의 E<sub>4</sub>는 전치사 보족어(Präpositionalobjekt), E<sub>5</sub>는 고정적부사 보족어 (statische Adverbialergänzung), E<sub>6</sub>는 방향성 보족어(Richtungsergänzung), E<sub>8</sub>은 비교보족어(Comparabile als Ergänzung) (Engel 1970 S. 374)가 되어 있다. 이 중 E<sub>456</sub>을 Heringer는 E<sub>5</sub>라는 하나의 보족어로 통합시키고 있다.

5) V<sub>12</sub>에서 1은 미충전 위치(Leerstelle)의 수, 즉 1가 동사임을 나타내고 뒤쪽의 2는 원래 2가 동사 이상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E<sub>1,2,...</sub>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1가 동사 다음의 2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Heringer 1970 S. 193).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12a)의 zu Papier bringen에서 zu Papier가 FN이 되기 위해서는 Papier가 동작명사가 아니고 단순한 양표시(Größenbezeichnung)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wohin?이나 wozu?로 의문문을 만들 수 없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7)의 경우는 다음의 (13~15)가 완전동사로 (16~17)이 FV로 나타나는 예문에서 설명되고 있다.

(13) Wir *kommen* durch die Fortschritte zu einer engeren politischen Vereinigung.

(14) Ich *komme* nun sehr rasch zur Schlußfolgerung.

(15) Der Maler *kommt* zur Versteigerung.

(16) Etwas *kommt* durch mich zu Ende.

(17) Das Bild *kommt* zur Versteigerung.

전자의 경우 FN이 대체적으로 동작명사 또는 상태명사이기는 하지만,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주어가 사람(Person)이고 그 주체가 어떤 목표로 향한 동작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다가 이 동사의 방향성을 명시하는 첨가어(zu...Vereinigung, zur Schlußfolgerung, zur Versteigerung)는 삭제시켜도 문장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komm-'은 완전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Ebd. S. 29f). 그러나 (16~17)의 경우는 (13~15)와 그 역(逆)적인 관계에 있다. 우선 주어는 사물(Sache)이 되고 FN(zu Ende, zur Versteigerung)이 동사의 의미내용을 그대로 가진 명사로 나타나고 FV(kommen)은 그의 고유한 구체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다만 FN에 대한 기능적 역할만 하는 일종의 조동사로 나타난다. 이들 FN과 FV가 합쳐져서 비로소 전체 의미가 나타나는 기능동사구(FVG)가 된다. 따라서 (16~17)의 의미를 그대로 보존시키자면 FV와 FN 가운데 어느 하나도 생략하거나 삭제시킬 수도 없고, Wozu?나 Wohin? 따위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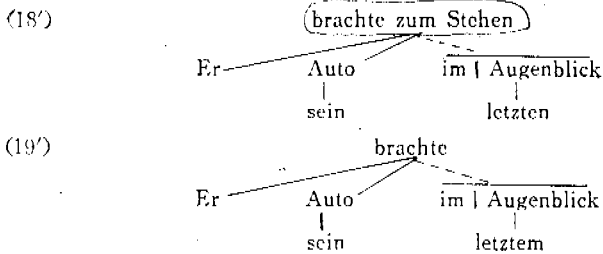
이와같이 FVG의 한계는 의문사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없고, 어느 하나를 삭제할 수도 없다는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Heringer는 이 기준을 9가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이 밖에도 Engelen(S. 2ff)은 8가지, Helbig(S. 276ff)는 16가지 그리고 Günther/Pape 1976 S. 109f)는 9가지를 정해 놓고 있다. 대체적으로 8에서 16까지 그 수가 일정치 않지만 Helbig의 경우 그 수가 늘어난 것은 세부사항까지를 독립항으로 묶었기 때문이고 또 그의 기준 가운데서도 그 기준의 예외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상의 기준 수 가운데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을 골라 FV와 완전동사의 명확한 한계를 정하기로 한다.

1. FVG의 의미내용은 FN에 있고 완전동사가 FV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당어휘소(Lexem)는 본래의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결합가(Valenz)도 변화를 일으킨다(Helbig. S. 277, Engelen S. 2, Heringer S.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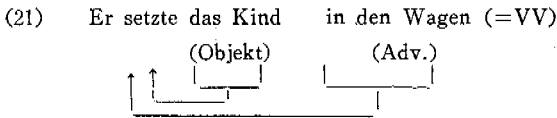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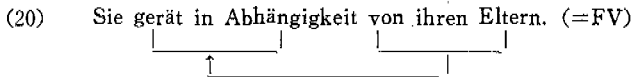
(18) Er *brachte* sein Auto im letzten Augenblick *zum Stehen*.

(19) Er *brachte* sein Auto im letzten Augenblick.

‘bring-’의 본래 의미는 ‘an eine bestimmte Stelle fortbewegen’(Wahrig, Deutsches Wörterbuch)이다. 그러나 (18)에서는 이러한 의미는 없고 (19)에만 이러한 의미가 있다. (18)에서는 동사의 의미라기 보다는 오히려 동사 부분의 기능이 zum Stehen이라는 명사 부분과의 결합에 의해서 비로소 실현된다. 그래서 Tesnière의 수형도는 (18’)와 같이 되고 (19)는 (19’)와 같이 되어 (18’)는 brachte zum Stehen이 2가들의 의무적으로 그리고 자유 첨가어



하나를 취하는 반면 (19’)는 brachte 하나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에서 보는 Helbig 식의 수형도(Helbig S. 278)로는 (2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합가산정에 문제가 있다.



2. FVG에 나타나는 FN으로는 직접 의문문을 만들 수 없다.

(22) Die Verhandlung *führt* zu dem Ergebnis, daß...

→Wozu führt die Verhandlung?

(23) ...Wenn man diesen Punkt klarstellen könnte, würde dies dem ganzen Parlament *zur Genugung* *gereichen*.

→Wozu gereicht dies dem Parlament?

(24) Die Verhandlung *geriet* ins Stocken.

→\*Wohin gerieten die Verhandlung?

(22)는 ‘führ-’가 ‘in eine bestimmte Richtung bewegen’이나 ‘an ein Ziel bringen’의 ‘führen<sub>0(1)4</sub>’ (KVL S. 183)이 되어 4E(=Präp-E)를 의무적으로 취하고 (23)의 ‘gereich-’도 ‘gereichen<sub>034</sub>’를 취하는 3가 동사로 나타나고 따라서 VV(Vollverben)로 쓰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24)의 ‘ins Stocken geraten’은 이 자체로 의문문을 만들지 못한다.

3. FVG의 FN에서 나타나는 관사형식(정관사, 선행접합사, 무관사)은 고정되어 있다.

a) FN에서 정관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이것은 통시적인 현상에서만 관찰되는 것으로 “in den Fluß bringen, in den Gang bringen, in den Schwung bringen” 따위에서 발견되지만 현행으로는 관사를 탈락시키고 사용한다(Heringer S. 38, Grundzüge S. 441). 그러나 (25)에서와 같은 현상은 FVG가 ‘machen, daß die Sozialpartner etwas einsehen’과 같은 사역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도 있다(Ebd. S. 69).

(25) Anf einem solchen Gebiet muß sich die Hohe Behörde darauf beschränken, die Sozialpartner zu der Einsicht zu bringen, daß es in ihrem gemeinsamen Interesse liegt, gemeinsam auf der Ebene der Gemeinschaft über ihre eigenen Arbeitsbedingungen zu diskutieren...

6) Enklitikon이라 불리우는 선행 접합사는 ‘ins Schwitzen kommen/bringen, zur Einsicht kommen/bringen, zum Stehen kommen/bringen’ 따위에서의 ‘ins, zur, zum’ 따위로 반드시 융합형으로 나타나고 ‘in das; zu der, zu einer, zu dem, zu einem’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c) ‘in Frage kommen, in Aufregung bringen’ 따위는 관사 없이 사용되고 다른 관사나 부가어와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

4. FVG의 FN은 대용어(Anaphorisierung)로 대치될 수 없고 부정사(Negation) kein을 FN에 부가시킬 수 없다. 따라서 nicht도 FN속에 들어갈 수 없다.

(26) Sie brachte ihn zur Verzweiflung.

→\*Sie brachte ihn dazu.

(27) Das Bild kommt zur Versteigerung.

→\*Das Bild kommt zu keiner Versteigerung.

(27) a. Das Gesetz tritt in Kraft.

→\*Das Gesetz tritt in nicht Kraft.

Das Gesetz tritt nicht in Kraft.

b. \*Er sagte, daß das Gesetz in Kraft nicht kommt.

c. Er sagte, daß das Gesetz nicht in Kraft kommt.

(28) Konnten Sie ihn zum Nachgeben zwingen?

→Ich konnte ihn nicht dazu zwingen.

(7) Wir kommen zum Schluß.

→Wir kommen zu keinem Schluß.

(26)의 dazu는 FN이 대용어가 될 수 없다는 규칙에 해당되고 (17)의 ‘zu keiner’는 kein으로 FN을 부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7a)의 nicht는 in과 Kraft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27b)의 nicht는 부분장에서 FN과 FV는 마치 조동사와 완전동사(본동사)의 관계처럼 결합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27c)의 형태로 부정된다. 이것이 FVG의 배어 특성이다. (28)과 (7)의 zwingen과 kommen은 다 같이 완전동사이기 때문에 대용어도 되고 kein도 들어갈 수 있다.



5. FN에 부가어를 붙여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a) FVG가 아직 어휘화(lexikalisiert)되지 않는 경우 FN은 부가어를 가질 수 있다.

(29) Er geriet in Not, in *große* Not, in *bittere* Not.

(30) Er stellt es ihm zur Verfügung, zu *seiner persönlichen* Verfügung.

b) FVG가 완전히 어휘화 되었을 때는 부가어를 가질 수 없다.

(31) \*Er brachte die Angelegenheit zur *sofortige* Sprache.

(32) \*Er kommt nicht in (*eine*) Frage der *Wichtigkeit*.

(33) \*Wir bringen ihn in (*eine*) Verlegenheit von *Dauer*.

c) \*die Gefahr, die er gelaufen ist; \*der Ausdruck, zu dem er die Sache gebracht hat' 처럼 FVG에서 FN을 부가적 관계문장으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극히 제한적이다.

6. FN은 복수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

(34) Wir bringen die Angelegenheit zur Sprache.

→\*Wir bringen die Angelegenheit zu den Sprachen.

물론 \*in Fragen kommen; \*in Aufregungen bringen' 따위의 형식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7. FVG는 FN의 어간으로 'sein, werden, bleiben + 형용사'와 같은 완전동사로 대체시킬 수 있다(Helbig S. 276, Engelen S. 3). 그러나 이 때 FVG에서 표출된 동작적 사건진행의 단계가 파괴된다(Vgl. 동작양태).

(35) Er *geriet* in Zorn.

→Er wurde zornig.

(36) Er *brachte* das Schauspiel zur *Aufführung*.

→Er *führte* das Schauspiel *auf*.

전치사격 목적어(Präp-Obj.)를 갖는 완전동사의 경우 위 (35~36)과 같은 풀어쓰기는 불가능하다.

이 기준은 물론 판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FVG에서는 이런 대체성이 없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Ebd.).

## V. 동작양태 (Aktionsart)

문제의 쫓점은 기준 7. 과 연관시켜 FVG에 나오는 동작양태다.

모든 동사는 여러 종류의 시간적 실존형(zeitliche Existenzform)에 따라 상태(Zustand), 행동(Tätigkeit), 사건진행(Vorgang), 동작(Handlung, Motion, Bewegung)을 나타낸다.

(Renicke S. 14 u. S. 19ff; Klein S. 15) 이때 표시된 것들은 모두 그때마다 의미차원에 따라 실질세계에 대해 지시체와 맺고 있는 연관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시간적인 자질이 주어져 있다. 사건진행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결과로 나타나거나 시간선상에서 계속한다. 시간적 단계(Phasen)가 인식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상응되는 사건진행과 상태는 시간적으로 무한한 것으로 또는 유한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treffen' 동사는 부정적·찰나적(符點的·刹那的)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유한한 것으로 나타난다. laufen 동사는 신진(伸展)되어가고 연장되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또 일직선적으로 진행되는 무한한 것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sitzen' 동사는 다차원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신진되어가는 신진동사라 할 수 있지만 부정적·찰나적, 연장적, 진행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사다. 이와같은 진행동사나 공간적 신진동사들은 무시간적이고 무공간적인 부정동사와 대립관계에 있다. 따라서 'laufen'이나 'wandern' 같은 동사는 일정한 동사의미, 즉 일차원적 일직선적 의미유형에 고착되어 있는 무한성의 시간성을 갖게 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이같은 동작동사(Motionsverben bzw. Bewegungsverben)는 실제로 움직이는 동사다. 사건진행동사(Vorgangsverben)도 직선 시간적으로 판단된 연장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동사나 시간동사의 일종으로 본다. 이와 반면에 운동성이 없고 따라서 직선적·진행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행위(Tun)만을 나타내는 모든 행동동사(Tätigkeitsverben)는 진행영역 바깥에 있다. 그러나 이런 동사들도 부정동사, 공간동사 또는 상태동사들과 비교해서도 연장적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연장적 특징을 가진 신진동사거나 진행적 특징을 가진 연장동사다. 또 시간적으로 단계가 잡혀진 특수한 케이스로는 사건의 반복이 있다. 이런 경우는 시작(Beginn), 지속(Dauer), 종결(Abschluß)이 반복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사건 진행 동사나 상태 동사는 시간적으로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이한 강도성이나 약도성(弱度性)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사건의 진행방식, 즉 실상(Sachverhalt)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것이 어떤 단계로 구분되어지느냐의 특수한 양상을 동작양태(Aktionsart)라 한다.

이것은 관찰자(또는 관찰행위)와 그에 의해 관찰된 대상간의 공간적 관계의 양상을 내적 시간 구성인 것으로 보는 상(Aspekt)과는 다르다(Harweg 1976 S. 6). 원래 이 상은 관찰자가 어떤 실상의 완료(Vollendung)나 미완료(Nichtvollendung)를 공간적 관계의 내적 시간구성과 관련시켜 표현하는 문법범주를 뜻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관찰시점과 사건지점간의 시간적 위상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은 늘 어떤 환경, 즉 어떤 고정된 관련점(fester Bezugspunkt)과 결합되어 있는 지시적 개념(deiktischer Begriff)을 말하는 것이다(Heringer S. 81). 이때 사건진행은 imperfekt로 기술되거나 일어났던 일(perfekt)로 기술되거나 한다. 러시아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시제단계에 완전하게 구조화된 형태론적 체계가 이면적인 계속 대 완료라는 대립과 상응하지만 대부분의 언어는 이 상에 대한 조짐

만 보여줄 뿐이고 그 문법적 번주는 구체화되거나 체계화되지는 않는다. 독일말도 형식체계로서의 상은 없다.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은 문법적 범주로서 상이한 첨가철이나 모음교체(Ablaut) 또는 형태론적 수단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독일말에는 이런 체계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신 우리는 동작양태라는 표현으로 동사의 동작이 시간적 단계동작 선상에 입각한 일정한 위치에 따른 양태를 전술한 바와 같이 무한한 또는 유한한 것으로 나타낸다(Flämig 1965 S. 2f).

따라서 동작양태는 우리가 사전진행의 시간적 진행을 어휘내부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냐는 가능성으로 결정한다. Heringer는 이것을 상태의 변화 여하에 따라 양적 동작양태(quantitative Aktionsart)와 질적동작양태(qualitative Aktionsart)로 하위구분하여 전자를 가산(zählbar) 범주와 측정가능(meßbar) 범주로 다시 구분하고, 후자를 단계적 동작양태(Phasenaktionsart)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Heringer S. 81).

질적 동작양태 : 시작과 종결이 없는 진행으로서의 사전진행을 나타낸다.

a) 진행태(kursiv)<sup>6)</sup> gehen을 —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gehen이 불문 시작점과 종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부정형의 경우 이 진행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sup>7)</sup>

b) 변화태(transformativ)

- ① 기시대(ingressiv) sterben이 이 양태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시대(anfangen, tot zu sein) —로도, 종결태(aufhören zu leben) —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사는 어떤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변화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적 동작양태

a) 가산범주(zählbar)

- ① 반복태(iterativ) Sprünge machen처럼 변형적 과정이 반복된 진행으로 나타난다.
- ② 일회태(semelfaktiv) einen Sprung machen처럼 변형적 과정이 일회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b) 측정가능 범주(zählbar)

- ① 찰나태(momentan) 변형적 과정이 부정적(punktuell)으로 나타나고—처럼 직선으로 포기된 진행이 한 시점에 보인다(umfallen).
- ② 계속태(durativ) 변형적 과정이 시간상의 연장을 갖는 진행으로 나타난다(zerfallen).

이에 반해 Flämig(1965 S. 2ff)는 시간적 국면을 표시하는, 즉 사진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구분시켜 주는 단계적 동작양태(Phasenaktionsart)와 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진의 단계 구분(Abstufung)에만 관여하는, 즉 사진의 시간 경과를 구분시키지 않는 데 쓰는 동작양태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지극히 언어의적이다. 동작양태는 어떤 언어가 사용될 때 그것에 의

6) 계속태(durativ)로도 쓰인다. Perfekt와 Imperfekt의 대립에서 후자의 뜻으로 사용된다.

7) gehen을 문맥속에서 보면 Er geht zum Bahnhof에서는 —의 그림으로, er geht vom Theater zum Bahnhof는 시작점과 종결점을 갖는 |——|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따라서 동작양태는 문맥에서 완전히 나타날 수 있다.

해 표시된 직접적인 특정한 의미 또는 실상이라는 외연(Denotate)으로부터 상이한 관점(사건진행 또는 사건)에 따라 상이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자질의 구분을 위해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동사어간의 의미요소, 조어요소(Affixe), 통사적 결합」(Flämig S. 7) 따위가 사건진행의 객관적 실상을 언어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이한 사건진행 자질들이 체계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거기에서 동작양태의 개념적 분류 관점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subjektiv u. willkürlich) (Ebd.)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예를 들면 'töten, schwärzen, öffnen' 따위는 관점에 따라 '어떤 새로운 상태로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시태(Initiv)일 수도 있고 '일어난 결과'를 가리키는 종결태(Finitiv)일 수도 있다. 'grünen, reifen, altern'은 시작(Eintriff), 전이(Übergang), 변화(Veränderung), 진행(Verlauf)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erbleichen'은 '창백해지기 시작하다'도 되고 '창백한 상태로의 전이'를 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독일어에는 동작양태를 표시하기 위한 일관된 통일적 체계를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상이한 언어적 수단을 고려하여 그것을 상이한 체계화에 따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우선 Flämig의 체계화와 Steinitz의 그것을 보면 이들은 다 같이 이 동작양태를 문법적 범주라는 틀에서 기술하여 의미와 언어적 형태 사이의 체계적 관계를 그 대상으로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결과는 부정적으로 비친다 (Flämig S. 7f, Steinitz S. 13f).

#### a) 단순동사의 동작양태

언어적 표현체	동작양태 유형
arbeiten	Durativ(imperfekt) <sup>8)</sup>
schlafen	
treffen	punktuell(perfektiv)
finden	Egressiv
atmen	
fliegen	Iterativ
schreiten	
gehen-laufen-rennen	
rufen-schreien-brüllen	
sausen	Intensiv
saufen	
strahlen-leuchten-glimmen	Diminutiv

동사는 동작적인 의미요소를 내포하면서 사건진행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동사의 동작양태는 동사어간의 의미에, 즉 어휘적 의미에 바탕을 두고 그 유형을 찾아야 한다.

8) Flämig은 imperfekt/perfekt대신 Durativ/Nicht-durativ 또는 Durativ/Terminativ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동사들이 어떤 동작양태를 갖는가를 확정시킨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분명한 상태를 면치 못한다. 예를 들어 (37)의 'gehen'은 순환태(kursiv)로, (38)의 그것은 완결태(terminativ)로 나타나서 동사의 의미와 특수한 양태의 사건진행 단계는 통사론적 연관에서만 완전히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동작적 특성을 가지고 또 서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동사대립(Verbpaar)을 독립어로서는 만들 수가 없다.

(37) Sein Herz geht wie ein Uhrwerk.

(38) Johanna geht, und niemals kehrt sie wieder.

b) 형태론적 파생어(morphologische Ableitungen) 접두사(Prefix)나 접미사(Suffix) 따위의 형성소(Formativ)가 동사어간에 첨가되어 사건진행의 단계구분(Vorgangsabstufung)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중 접두사의 기능은 사건진행의 단계구분의 기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료화(Perfektivierung)와 함께 타동사화(Transitivierung), 동사화(Verbalisierung) 그리고 동사적 진행의 일반적 의미의 단계구분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동작양태의 체계를 만드는 일종의 방해요소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상이한 접두사들이 모든 동사와 임의로 결합될 수 없어서 생산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z. B. erblühen—\*entblühen; \*erzünden—entzünden) 또 같은 접두사가 상이한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z. B. erblühen, erwachen, erblinden—기시단계; erschlagen, erschöpfen, ertränken—종결단계; erwecken, ernähren—강성단계) 역시 비생산적이다.

한편 접미사(Suffix)는 이를 가지고 사건진행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의미적 가치는 별로 없다. 그러나 다음의 보기처럼 그 사용에는 제한을 받는다.

강약태(Intensität)	}	감성태(Diminutiva) : werken/werkeln
		arbeiten/*arbeitenl
		frommen/frömmeln
		brav/*bräveln
		강성태(Intensiva) : klappen/klappern
		schlagen/*schlagern

그러기 때문에 형식과 기능간의 분명한 배열이 없고 반복태(Iterativa)와 강성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z. B. tröpfeln=immer wieder Tropfen bilden; kränkeln=immer wieder etwas krank sein). 강성태는 또 비하형으로 파악될 때가 있어 그 한계가 모호하다(z. B. betteln, deuteln, spötteln).

이에 대해 Steinitz(S. 18)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체계적, 형태론적, 문법적 동작양태의 표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1. 형성소(Affix)는 해당된 의미 이외의 어떤 부수적 의미도 파생어에 삽입시키지 못하

더 의미적으로 문제의 모든 동사어간과 어울릴 정도로 형성소에는 고유 의미가 없다.

2.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동사어간에 형태론적으로 첨가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생산적이어야 한다.

3. 해당 표시기능은 동일한 형성소의 다른 가능한 기능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독일어의 동사를 기본어로 하여 첨가사를 첨가시켰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첨가사가 전적으로 사전진행의 단계 구분에 기여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의미적 문법 기능만을 가졌다는 사실은 분명한 동작양태 표시를 어렵게 하고, 동작양태 구분의 정확한 한계를 방해한다. 따라서 첨가사를 가지고 동작양태 표시를 한다는 것은 문법화된 체계에는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관된 어형변화 계열이 없어서 임의의 동사에 임의의 동작양태 형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c) 문법적 영향력을 지닌 동작양태

Flämig(S. 10f)는 동작양태의 구분을 위해서 완료단계(Vollzugsstufe)와 진행단계(Verlaufsstufe)를 시제형식(Tempusform)과 범형식(Modusform)에서도 찾고 있다. 한편 Steinitz(S. 30f)는 Andersson(1972)에 입각해서 이를 grenzbezogene Verben과 nichtgrenzbezogene Verben으로 동작양태를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어떤 동작이 하나의 선에서 하나의 한계를 갖고 그 선에서 넘어버린 것을 grenzbezogen이라 하여 한계도달, 즉 상태완료의 뜻을 나타내고, 반면에 nichtgrenzbezogen은 그 하나의 선에서 그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거나 그 한계내에서 머무는 것으로 한계미달, 즉 상태 미완료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완결태(perfektiv)와 지속태(durativ; imperfekt)는 시제형식과 범형식에서 가장 잘 부각되어 있다고 본다.

완결태(perfektiv-Flämig; grenzbezogen  
—Andersson · Steinitz)

지속태(imperfekt-Flämig; nichtgrenzbezogen  
—Andersson · Steinitz)

## 1. 자동사

### a) sein과 결합된 상태의 변화

Er *ist* gekommen  
Die Blume *ist* verblüht.  
Die Kinder *sind* eingeschlafen.  
Er *ist* hinübergeschwommen.

### a) 상태의 지속

Es *hat* gebrannt.  
Die Kinder *haben* geschlafen.  
Er *hat* lange geschwommen.

### b) 부가어로 쓰인 과거분사

der ins Wasser gesprungene Junge  
die eingeschlafene Tante  
der auf die Straße gegangene Mann

### b) 지속의 의미인 자동사의 과거분사

\*der gesprungene Junge  
\*die geschlafene Tante  
\*der auf der Straße gegangene Mann

## 2. 타동사

- |  |   |
|--|---|
| a) 상태의 수동<br>Das Buch <i>ist</i> gefunden.                   | a) 상태의 수동<br>*Das Buch <i>ist</i> geliebt.                |
| 6) 사건진행 동사의 수동<br>Er <i>ist</i> getroffen <i>worden</i> .    | b) 사건진행 동사의 수동<br>?Er <i>ist</i> gefunden <i>worden</i> . |
| c) haben과 결합된 능동구조<br>Jemand <i>hat</i> das Buch gefunden.   | c) 능동구조<br>Jemand <i>liebt/sieht</i> das Buch.            |
| d) 부가어로 쓰이는 과거분사<br>2. c)와 연관시켜<br>das <i>gefundene</i> Buch | d) 2. c)와 연관시켜<br>das <i>geliebte/gesehene</i> Buch.      |

이 완결태와 지속태의 구분에 부합되는 동사들로는 단순동사와 접두사 *los-*와 *aus-*가 결합된 동사들이다. 이 때 *los-*는 어떤 동작의 출발시점을 의미하고, *aus-*는 어떤 동작의 성공적인 완결을 나타낸다.

접두사 <i>los-</i>	
<u>Durativ</u>	<u>Ingressiv</u>
reden	losreden
schreien	losschreien
laufen	loslaufen
접두사 <i>aus-</i>	
<u>Durativ</u>	<u>Egressiv</u>
lernen	auslernen
schlafen	ausschlafen
arbeiten	sich ausarbeiten

이 때 주목할 점은 Terminativ, 즉 Grenzbezogenheit를 기시대(Ingressiv)와 종결태(Egressiv)로 하위부류화 시켰다는 점이다(Steinitz S. 31f). Flämig가 동작양태를 하위부류화 시킬 때(Vgl. 주 8), 지속태를 Phasenaktionsart로, 완결태를 Aktionsart로 구분하여, 전자를 미완료태(imperfektiv), 지속태(durativ), 진행태(kursiv)로 하위구분하고, 후자를 완료태(perfektiv), 부점태(punktueller Aktionsart), 완결태(terminativ)로 구분하였다. 또 지속태를 동사의 동작자질이 어떤 상태 내부에서 서로 다른 어떤 단계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기시대(ingressiv), 기동태(inchoativ), 종결태(egressiv), 결과태(konklusiv), 변이태(effektiv) 따위로 하위부류화 시키고 여기에 강약태(intensitiv)를 첨가시키고 있다. 이 중 기시대(ingressiv)는 어떤 사건진행 동사의 시작이 갑작스레 일어나고 동시에 완결되는 양상이고, 기동태(inchoativ)는 점진적인 변화단계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반면에 종결태(egressiv)는 어떤 상태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런 종말을 고하는 양상에 쓰이고

있다. 동작양태에서 *grenzbezogen/nichtgrenzbezogen*만의 대립(Korrelat)에서는 두 개의 동작적 주 유형을 구분하는 Andersson의 분류법에 비추어 얼핏 모순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grenzbezogene Aktionsart*를 「Ingressiv, Egressiv 따위로 하위부류화시킨 것은 Andersson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설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두고 단순히 *grenzbezogene Aktionsart*라고만 해 둘 수 있다. 왜냐하면 *grenzbezogen/nichtgrenzbezogen*만이 동사의 문법적 체계에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Steinitz S. 34)라는 Steinitz의 변명에 따라 동작양태 유형에는 *grenzbezogen/nichtgrenzbezogen* 이외의 어떤 유형도 문법적 기준으로 할 수 없지만 이 Ingressiv와 Egressiv를 *grenzbezogene Aktionsart*라는 범주에 넣어 Flämig의 의미에서 완결태의 하위범주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los-*나 *aus-*가 붙은 동사는 ‘*schlafen/einschlafen*’과 같은 한 쌍의 동사와는 달리 한계(Grenze)라는 자질이 어떤 상태 내부에서 상이한 단계(시작 또는 종결)로 야기된다는 의미가 동사에 첨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einschlafen*’은 ‘*wach sein*’과 ‘*schlafen*’간의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한계가 그어져 있는 반면에 ‘*reden/losreden*’이라든지 *lernen/auslernen*에서는 한 한계내에서 단계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Steinitz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Terminativ의 개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전자를, 즉 ‘*einschlafen*’을 Terminativ 1로 하고, 후자를 Terminativ 2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작양태 분류에 대한 문법적 기준이 두 개로 환원된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문법적 차이가 동작양태의 차이로 소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고, 이런 문법적 자질을 고려함으로써 동사들은 서로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사를 상이한 동작양태로 구분하는 것도 문법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동작양태의 개념을 의미론적 범주에서 규명한 Flämig나 어휘적·의미적 범주에서 추구한 Andersson의 입장에 선 Steinitz의 연구가 Durativ/Terminativ 또는 *grenzbezogen/nichtgrenzbezogen*이라는 개념을 동작양태 범주에 도입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 d) FVG를 위한 동작양태

우리는 Heringer, Flämig, Andersson, Steinitz에서 유도해 낸 동작양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독일어의 동작양태는 논자에 따라 첫째 저마다의 분류를 고집하고 있고, 둘째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분류해 놓았고, 셋째 독일어의 동작양태와 상(Aspekt)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넷째 아직은 비생산적인 체계에 머물러 있고…… 등등의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는 FVG와 연관된 동작양태를 구분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FVG에서 나타나는 FV가 대체적으로 대립(Korrelation)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연관시켜 동작양태를 하위 구분할 수 밖에 없다. (동작양태에서 Kausativa는 특수한 문법적 범주이기 때문에 e) FVG에서의 동작양태에서 취급한다.)

Heringer는 동작양태를 질적 동작양태(단계구분 동작양태)와 양적 동작양태로, Flämig



는 시간구분 동작양태와 단계구분 동작양태로 그리고 Andersson과 Steinitz는 grb/ngrb, 즉 perfektiv/durativ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진행이나 또는 변화나의 양상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건의 단계구분에도 그렇다. 그러나 문제의 쫓점은 시간의 진행에도 그렇거니와 사건의 단계구분에도 어떤 상태의 변화와 상태의 지속이다. 상에 perfekt/imperfekt라는 체계적 대립이 있듯이 동작양태에도 이와 유사한 체계적 대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작양태는 어휘와, 문법화에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상적 의미가 동사자체에 의해 표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a) 단순동사의 동작양태 b) 형태론적 파생어 c) 문법적 영향력을 지닌 동작양태를 기초로 이것을 FVG와 연관시켜 분류한다.

### 1. 질적 동작양태

- |                       |                                 |
|-----------------------|---------------------------------|
| a) 지속태(kursiv)        | schlafen; in Bewegung sein      |
| b) 변화태(transformativ) |                                 |
| ① 기동태(inchoativ)      | einschlafen; in Bewegung kommen |
| ② 종결태(egressiv)       | platzen                         |

### 2. 양적 동작양태

- |                     |                              |
|---------------------|------------------------------|
| a) 일회태(semelfaktiv) | treffen; einen Sprung machen |
| b) 계속태(durativ)     | wedeln, atmen, zerfallen     |

### e) FVG에서의 동작양태

FVG를 위한 동작양태는 질적 동작양태에만 국한된다. 왜냐하면 FV는 대체적으로 'sein/kommen, kommen(bzw. gelangen, geraten)/bringen (bzw. setzen, versetzen), haben/gcben...' 따위로 대립되어 지속태/변화태로, 즉 지속, 변화, 시작, 종결, 결과 따위의 자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론 통사론적 상황에 따라 양적 동작양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은 문맥상의 문제다. 그 밖에 이 대립된 동사들의 어휘들은 조어에 의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휘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통사론적 수단으로서 FVG에도 이용된다(Steinitz S. 35f). 이때 FV들은 대체적으로 그 본래의 의미와 동작양태를 상실하지만 어떤 결과로 가게 하는 동작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Brinkmann S. 260). 그러나 아래 표시된 현상들이 꼭 맞게 분류한 동작양태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첫째 지속태로서의 'sich ängstigen'은 'Angst haben'의 의미로, 변화태의 'in Angst geraten'은 'ängstlich werden'(Wahrig)의 의미가 되어 사건의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 범주로서의 동작양태는 FVG에서 비로소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의미적 판별소들이 체계적으로 형태론적 또는 통사론적 판별소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체는 문법범주가 존재한다는 Steinitz의 주장에 따라(Steinitz S. 35) 의미적 판별소와 형

지속태	변화태
sich ängstigen	in Angst geraten
sich bewegen	in Bewegung kommen
in Bewegung sein	
in Gefahr sein	{ sich gefahrden in Gefahr kommen

태본적 그리고/또는 통사론적 판별소들 간의 그러한 체계적인 관계는 독일어에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즉 상태(Zustand→durativ)로 표시되느냐 또는 상태변화(Zustandsveränderung→inchoativ)로 표시되느냐다. Steinitz도 지적한 바와 같이 Durativa와 Terminativa 이외의 어떠한 동작양태 유형도 FVG를 만들 수가 없고 Durativa의 FV로는 'stehen, sein, liegen' 따위고, Terminativa의 FV로는 'kommen, geraten' 따위라고 한 것에서도(Ebd. S. 36) FVG가 질적 동작양태의 범주에만 소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VG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법적 범주로서 사역태(Kausativa)가 있다. 사역태는 동사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어떤 무엇이 야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을 FVG와 연관시켜 본다면 각기 다른 결합가를 가진 동사를 가지고 사역을 만들 수 있는 동사는 'bringen'이다. 영가동사를 사역화시키면 'zum Regnen bringen'이 되는 것이 그 보기다. 단순동사로는 'machen'이 일가동사를 사역화시키고(z. B. Fritz macht Paul lachen.), 'lassen' 동사는 일가, 이가, 삼가 동사를 사역화시킨다(z. B. Fritz läßt Paul gehen, Fritz läßt Paul das Lied singen, Fritz läßt(durch) Paul dem Mann das Buch geben). 그 밖에 'gehen'을 'schicken'으로 바꾸면 어휘화의 수단으로 사역태가 되는 경우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역태가 과연 동작양태로 간주되는 동사부류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지속태와 변화태를 동작양태의 체계에서 끌어내어 'in Bewegung sein: in Bewegung kommen: in Bewegung bringen'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의미론적 또는 통사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체계속에 이 사역태를 삽입시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von Polenz에 의해서 처음부터 동작양태 범주에 들어간 이래 Engelen, Heringer, Helbig, Persson들이 그대로 그 체계속에서 규명하고 있으나 Engelen이나 Steinitz는 perfektiv/terminativ속에서 이것을 규명한다. 왜냐하면 이 사역태는 완료태의 하위부류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적 동작양태에서 완료태가 변화태로 변경되면 이 사역태는 독립적인 동작양태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다음 (39)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의 뜻이기 때문에 지속태이고, (40)도 "상연되다"의 뜻으로 영상이 없던 것이 상태가 변하여 영상이 나오기 시

(39) Er ist beim Arbeiten.

(40) Der Film gelangt zur Aufführung.

(41) Er setzt die Maschine außer Betrieb.

(42) Wir setzen ihn in Bewegung.

작하기 때문에 기동태가 되고 (41)은 “작동을 멈추게 하다”의 뜻이 되어 작동을 중심으로 보면 작동의 끝이 났으니까 종결태라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작동에서 정지의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기시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40)과 (41)은 다 같이 상태의 변화에는 틀림없으나 동작양태의 분류가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inchoative와 egressiv는 서로 함의 관계에 놓여 있다. (42)는 “그를 움직이게 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지상태의 것을 움직이게 하였으니 상태의 변화임에는 틀림없으나 동사 본래의 의미에 “—이게 하다”의 뜻이 함유되어 다른 양상이 첨가된 것이다. (40~41)이 서로 함의관계에 있지만 (42)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비사역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과 분리되는 사역적 요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역태는 비사역적 요소를 함유한 독립적인 동작양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FVG에서의 동작양태는 지속태, 변화태, 사역태라는 세 부류로 구분되고 사역태는 또 Kausativ+Transitiv와 Kausativ+Durativ로 분류된다. 이 부류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FVG 이외에도 그에 상응하는 표현수단도 가지고 있는데 단순동사 또는 형용사와 조동사의 결합형에서도 볼 수 있다(Grundzüge S. 436f)

KAUS+TRANS. 1		KAUS+DURATIV 2	TRANS. 3	
bringen	in Gefahr in Verwirrung (stecken) in Brand)		geraten	in Gefahr in Verwirrung in Brand
	zur Kenntnis zur Aufführung —			(nehmen zur Kenntnis) (gelangen zur Aufführung) in Vergessenheit
	zur Ruhe zur Anwendung —	lassen in Ruhe	kommen	zur Ruhe zur Anwendung in Behandlung in Ordnung
	in Ordnung in Ordnung zu Ende	halten in Ordnung	gehen	in Ordnung zu Ende zu Ende
führen	zu Ende			—
setzen	in Kenntnis in Gang in Betrieb	in Gang in Betrieb	(kommen	in Gang)
versetzen	in Angst	in Angst	bekommen	Angst Kenntnis
geben	zur Kenntnis)			—
stellen	zur Verfügung		(geraten	in Brand)
stecken	in Brand		eintreten	in Verhandlung treten in Verbindung

DURATIV 4		Vollverb-Entsprechungen: 5		
sein	in Gefahr	1 gefährden	3 s. gefährden	4 gefährdet sein
	in Verwirrung	1 verwirren	3 verwirrt werden	4 verwirrt sein
(stehen in Brand		1 anbrennen	3 anbrennen	4 brennen
(haben Kenntnis				
—		1 aufführen	3 aufgeführt werden	
—			3 vergessen w.	4 vergessen sein
—		1 beruhigen	3 s. beruhigen	4 beruhigt sein
	in Anwendung	2 anwenden	3/4 angewandt w.	
	in Behandlung	2 behandeln		4 behandelt werden
	in Ordnung		3 geordnet w.	
	in Ordnung	1 ordnen	3 s. ordnen	
	zu Ende	1 beenden	3 enden	4 beendet sein
(haben Kenntnis)				
	in Gang			
	in Betrieb			
haben	Angst			4 sich ängstigen
	<u>Kenntnis</u>			
stehen	zur Verfügung			
	in Brand	1 anzünden	3 anbrennen	4 brennen
	in Verhandlungen			4 verhandeln
	in Verbindung			

이 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사역태+변화태는 상당히 생산적이지만 사역태+지속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zur Ruhe bringen(사역+변화), in Ruhe lassen(사역+지속), zur Ruhe kommen(변화)'는 1 2 3에 골고루 배치되어 서열(Reihe)이 뚜렷하지만 'zu Ende bringen(사역+변화), zu Ende gehen(변화)'는 사역+지속과 지속태가 결여된 서열을 이루고 있다.

## VI. 결 어

이상으로 우리는 FVG에 관련되는 대체적인 개관을 보았다. FVG에서는 무엇보다 의미적 기준에서 보는 동작양태가 그 기술에 문제성을 던져준다. 왜냐하면 동작양태가 완전히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레벨에서의 기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N에 나오는 전치사나 명사는 한정되어 있고 또 FV도 한정되어 있다.

Rothkegel은 자료에 입각한 분석에서 FN은 약 150개, FV는 약 30개, FVG에 나오는 전치사는 11개로 계산하고 있다(Rothkegel S. 18). 그러나 Klein은 FV를 23개, FVG에 나오

는 전치사를 10개로 한정시키고 있다(Klein S. 24ff). 둘 다 기계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얻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숫자는 자료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Vgl. Schmidt S. 114ff).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전치사와 FV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FVG구성에 나오는 전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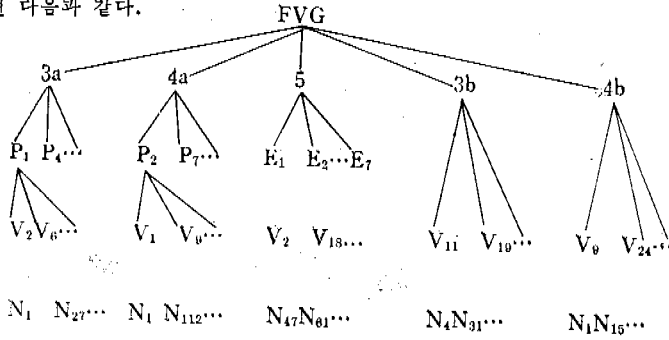
- ① an, auf, aus, außer, bei, in, um, unter, von,<sup>9)</sup> vor, zu
- ② am, aufs, im, ins, ums, zum, zur<sup>10)</sup>

b) FV

bleiben, bringen, erheben, *fallen*,<sup>11)</sup> fassen, finden, führen, geben, gehen, gelangen, geraten, haben, halten, kommen, *legen*, leisten, machen, nehmen, *rufen*, sein, setzen, stehen, stellen, treffen, treiben, treten, ziehen.

이상의 전치사와 FV를 가지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결합가능성은 FN, Präp, FV를 곱하면 된다. Rothkegel이 산정한 수는 약 85,000개에 달한다. (S. 16)<sup>12)</sup> 이것이 다 생산되어 응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 몇 프로만 생성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고 또 생성중에 있다. 그러나 몇 개 안되는 이 FVG의 사용 빈도수는 증가일로에 있다. 이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때까지 우리가 보아 온 것같이 동작양태와 결합되고 연관된 FVG의 구조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9) Klein에서는 von이 없다.
- 10) 선행어 결합형(Enklisis) 전치사를 합치면 18개가 된다.
- 11) Klein의 FV에는 'fallen, fassen, legen, rufen'이 빠져있고 Rothkegel은 FV를 원래 약 30개로 산정했으나(S. 17) 실제 산정에는 27개로 한정시켰다. 'bekommen, eintreten, stecken, versetzen' 등이 가산되면 약 30개가 되나 기계분석을 위해서는 형식화된 유형에 따른 EVG가 가산되기 때문에 27개 내외로 한정시킨 것이다.
- 12) 우리는 FVG를 구분시킬 때 7개의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Rothkegel의 경우는 이 기준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가운데 유형 1과 2를 빼고 나머지 3a~b, 4a~b, 5 유형을 가지고 이와같은 산정수를 계산해 낸 것이다. 예를 들면 본문의 전치사와 FV를 그 순서대로 지표를 만들고 FN도 Abhängigkeit, Aktion, Angriff, Anfang, Aufruhr, Belang, Bewegung, Beziehung...의 순서로 지표를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FVG-Präp i)은 P<sub>1</sub>, ...P<sub>11</sub> FVG-Präp ii)는 E<sub>1</sub>, ...E<sub>7</sub>, FV는 V<sub>1</sub>, ...V<sub>27</sub>, FN은 N<sub>1</sub>, ...N<sub>160</sub>이 되어 그 실제 보기로 P<sub>1</sub>=an, P<sub>11</sub>=zu; E<sub>1</sub>=am, E<sub>7</sub>=zur; V<sub>1</sub>=bleiben, V<sub>10</sub>=gelangen; N<sub>1</sub>=Abhängigkeit, N<sub>6</sub>=Belang이 된다. 이를 토대로 FVG의 결합가능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참 고 문 헌

- W. Abramov: Über einige Regularitäten in den Valenzeigenschaften der verbalen Streckformen vom Bautyp "präpositionale nominale Komponenten+verbale Komponenten" (in Bewegung sein, kommen, bringen)  
in: Valence, semantic case, and grammatical Relations, Hrsg. W. Abraham.
- J. Ballweg: Semantische Grundlagen einer Theorie der deutschen kausativen Verben, TBL Verlag, Tübingen 1977.
- H. Brinkmann: Die deutsche Sprache, Pädagogische Verlag, Schwann Düsseldorf 1962.
- K.H. Daniels: Substantivierungstendenzen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Düsseldorf 1963.
- U. Engel/H. Schumacher: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KVL), TBL Verlag, Tübingen 1976.
- B. Engelen: Zum System der Funktionsverbgefüge, in: Wirkendes Wort, 1968.
- H. Esau: Funktionsverbgefüge, in: Polia Linguistica, 1976.
- W. Flämig: Zur Funktion des Verbs  
Deutsch als Fremdsprache (1964) 4, Deutsch als Fremdsprache (1965) 2.
- L. Götze: Funktionsverbgefüge im Deutschunterricht für Ausländer, in: Zielsprache Deutsch, 1973.
- H. Günther/S. Pape: Funktionsverbgefüge als Problem der Beschreibung komplexer Verben in der Valenztheorie, in: Untersuchungen zur Verbvalenz, Hrsg. H. Schumacher, Tübingen 1976.
- K.E. Heidolf et al.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Akademie Verlag, Berlin 1981.
- G. Helbig: Probleme der Beschreibung von Funktionsverbgefügen im Deutschen, in: DaF, 1979.
- W. Herrlitz: Funktionsverbgefüge vom Typ "in Erfahrung bringen", Max Niemeyer Verlag, 1973.
- H.J. Heringer: Die Opposition von 'kommen' und 'bringen' als Funktionsverben,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1968.
- W. Klein: Zur Kategorisierung der Funktionsverben, in: BLI 13, 1968.
- S. Lehmann: Zu einigen Problemen bei der Beschreibung von Funktionsverbgefügen, in: Zielsprache Deutsch, 1983.

- I. Persson: Das System der kausativen Funktionsverbgefüge, Kristianstads Boktryckeri Kristianstad 1975.
- I. Persson: Zu Konstruktionen mit "kommen" und "gelangen" vom Typ "zur Darstellung kommen, zu einer Lösung kommen/gelangen", in: DaF, 1984.
- I. Persson: Das Funktionsverbgefüge mit dem Funktionsverb "finden", in: DaF, 1981.
- P. von Polenz: Funktionsverben im heutigen Deutsch, in: Wirkendes Wort, Beiheft 5, Düsseldorf 1963.
- H. Popadić: Untersuchungen zur Frage der Nominalisierung des Verbalausdrucks im heutigen Zeitungsdeutsch, IDS, 1971.
- H. Renicke: Grundlegung der neuhochdeutschen Grammatik, Erich Schmidt Verlag, Berlin 1966.
- H. Rupp: Zum deutschen Verbalsystem, Sprache der Gegenwart 1, 1967.
- M.V. Russinova: Die Präposition "an" als Komponente beim Ausdruck der Aktionsarten des Verbs, in: DaF, 1978.
- V. Schmidt: Die Streckformen des deutschen Verbbums, VEB Max Niemeyer Verlag, 1968.
- K.E. Sommerfeldt: Zur Valenz von Funktionsverbgefügen, in: DaF, 1980.
- H. Tuchel: Streckformen in der fachsprachlichen Kommunikation, in: Sprachpflege, 1982.
- Yuan Jie: Funktionsverben und Funktionsverbgefüge—Definition, Gebrauch und Übersetzung im Deutschunterricht für Ausländer, in: Zielsprache Deutsch, 1982.
- G. Starke: Zum Einfluß von FVG auf den Satzbau im Deutschen, in: DaF, 1986.
- R. Steinitz: Der Status der Kategorie "Aktionsart" in der Grammatik, in: VEB, 1981.

**Zusammenfassung****Probleme der Beschreibung von FVG im Deutschen****Byong Tschan Rhie**

In dieser Arbeit wurden zunächst die Kriterien der Funktionsverbgefüge möglichst vollständig erfaßt und dann ihre Relevanz der Aktionsart beschrieben. Dabei handelte es sich um die Frage nach dem Wesen der FVG und um die FVG, in denen die Beziehungen der Funktionsverben untereinander erkennbar sind, die von verschiedener Art sind. Für solche Fragepunkte wurden verschiedene Lösungsansätze diskutiert.

Auf der Frage nach dem Wesen der FVG sind kritisch Beschreibungen für die Kriterien der FVG von Heringer(1968) entnommen. Bei den Beziehungen der FVG mit den Aktionsarten erhebt sich jedoch die Frage, welche Art überhaupt angenommen werden können und welchen Status sie haben, ob sie semantische oder grammatische Kategorien sind, ob die Abgrenzung der Aktionsarten gegen die Aspekte dabei auftauscht.